



PREMIER SKILLS

주한영국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4층

주한영국문화원 (우) 110-786

T +82 (0)2 3702 0600 F +82 (0)2 3702 0660

www.britishcouncil.kr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 사업과 성과 대한민국

<http://premierskillsenglish.britishcouncil.org>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란 ?

프리미어 스킬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영국문화원이 전 세계 28개국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오랜기간 영국 내에서 쌓아온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역량강화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2007년부터 영국문화원과 함께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스킬즈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커뮤니티 축구 지도자 교육과정

프리미어 리그 훈련진이 축구 지도의 철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한 총 4단계 교육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는 교육 수료 후 각 지역에서 프리미어 스킬즈 축구 수업과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축구 소재 영어 콘텐츠 제공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과 선수의 활동 등 축구의 다양한 주제를 매개로 영어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대상의 전문 영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http://premierskillsendenglish.britishcouncil.org/>



© Moustapha Seck



© Gabriela Maj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의 교육이념

영국의 선진 축구가 지역사회에 미쳐 온 긍정적인 효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 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소속 코치들이 직접 제작한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통합적 축구 교육을 제공합니다.
- ✓ 경쟁하는 법 보다는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하여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 ✓ 아동과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 ✓ 지역 사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스킬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기량의 차이나 지체부자유 여부,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각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축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아동과 청소년은 창의적으로 코치와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Glenn Guan



© Gabriela Maj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 코치의 역량

프리미어 스킬즈의 코치로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4 가지 핵심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분야 1 | 코칭 과정

SMILES

- SAFE** -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 MAXIMUM** - 적극적으로 최대한 학생의 참여를 도모하며
- INCLUSIVE** - 개인의 역량과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 LEARNING** - 학습이 이루어지며
- ENJOYMENT** - 즐겁고
- SUCCESS** - 선수의 수준에 맞는 성공을 도모하는 세션을 계획한다.

STEPS

각 학생의 활동 역량에 맞는 성장을 위해 수업과 경기 시 다음 다섯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한다.

- SPACE** (공간) - 수비공간의 넓이, 타겟 크기, 달리기 거리, 드리블 간격 등
- TASK** (과제) - 선수 스스로의 목표 설정, 득점 방식의 변화, 규칙 변화 등
- EQUIPMENT** (장비) - 공의 크기/개수/무게 변화, 콘 색깔 변화 등
- PARTICIPANT** (참가자) - 대항팀원 숫자 변경, 수비수 유무, (비)경쟁 등
- SPEED** (속도) - 연습 시범 후 각 선수의 연습/플레이 페이스 선택 장려 등

2

핵심분야 2 | 코칭 태도

- '코치 중심의 코치법'과 '선수 중심의 코치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수를 코칭의 중심에 두되 상황에 따라 양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선수가 스스로의 플레이를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British Council

3

핵심분야 3 | 코칭 실습

-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해 환경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 사고 및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안전한 실습 시범을 보인다.
- 코칭세션 혹은 경기 중에 일어나는 사고, 부상, 질병 발생시 대응 조치를 명확히 시행한다.
- 건강한 선수로서 필요한 체력과 식단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4

핵심분야 3 |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 기존의 축구 코칭의 목표가 각 선수의 기술을 개선하고 팀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면, 프리미어 스킬즈는 축구에 대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실행한다.
 - 지역기반 축구활동 : 축구 코칭 세션에 다양한 지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기반 축구행사 : 가용 자원을 이용하여 대중적인 축구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민이 화합과 발전의 장을 마련한다.
 - 자원봉사자 동기부여와 지원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하여 교육과 개발을 통해 폭넓은 코칭 스킬 및 행사 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British Council



© British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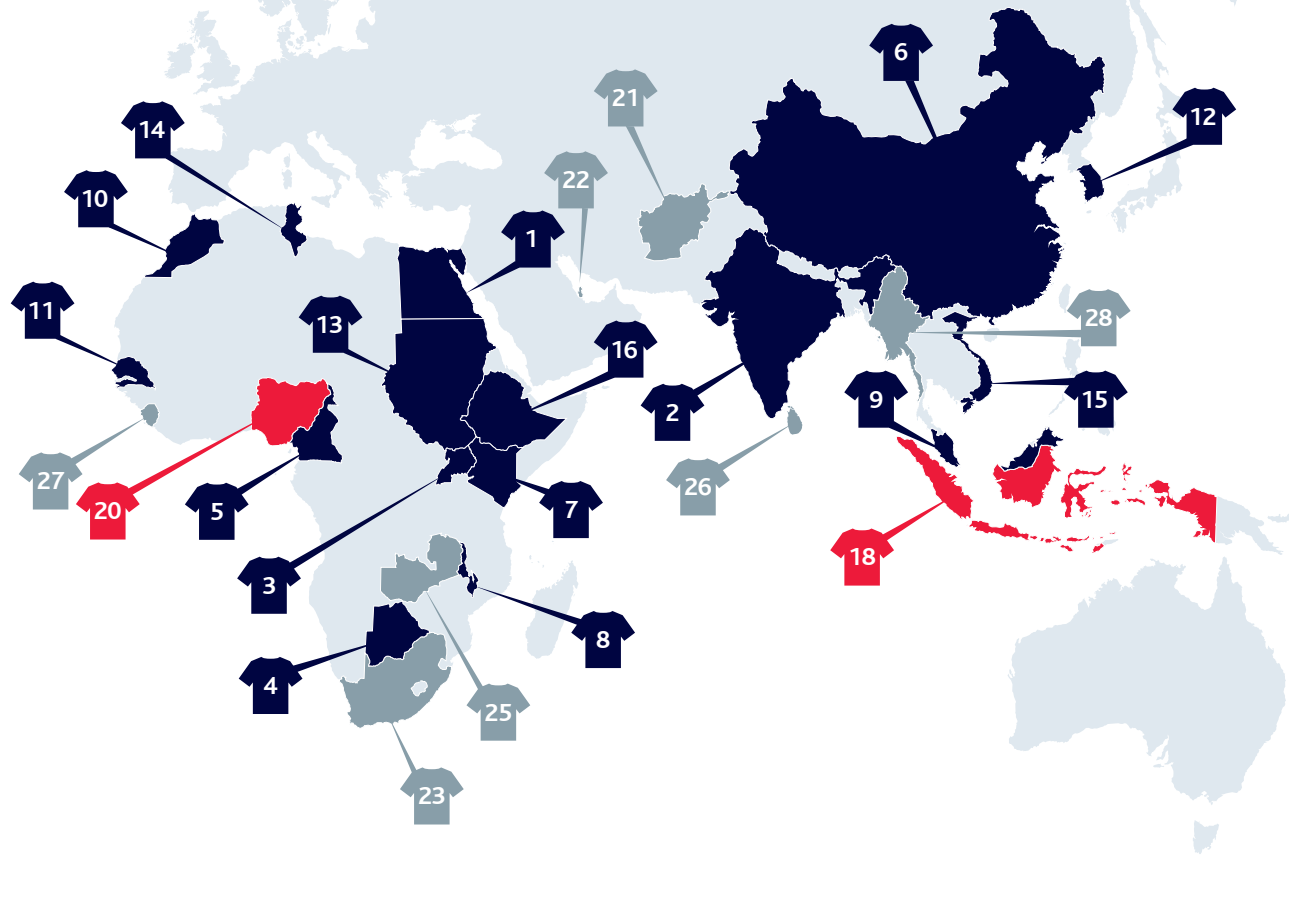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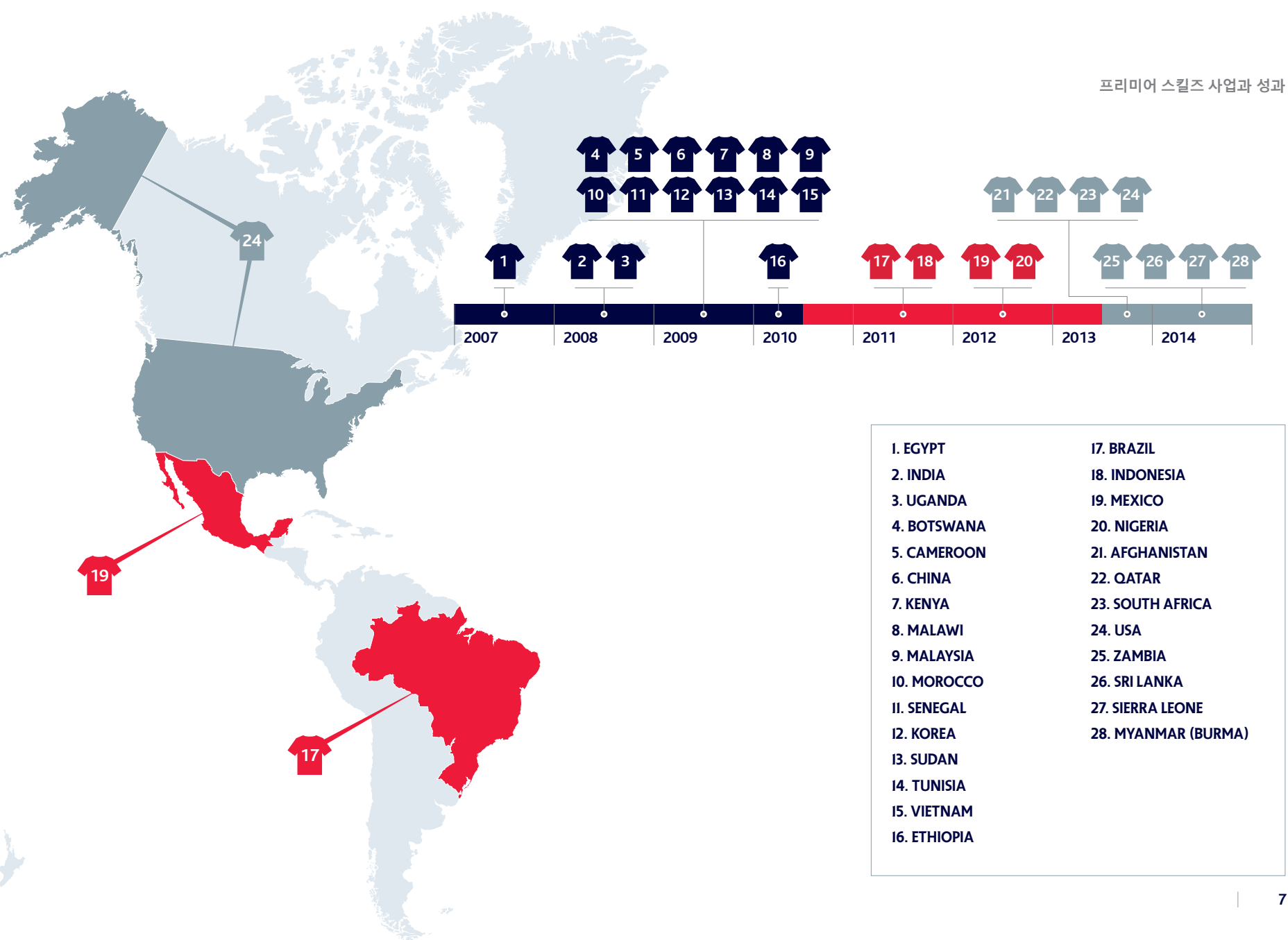
©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 연혁

2007년에 시작된 프리미어 스킬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잠비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미국 대륙의 총 28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 한국 활동





PREMIER SKILLS

프리미어 스킬즈 성과

코치 및 교사 역량강화

- 축구 코치와 타 분야의 교사 및 젊은 리더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수료한 코치는 2014년 한국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국내 프리미어 스킬즈 코치 양성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행의 주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 **레벨 1 지도자 자격**을 받은 한국 감독(2014) : 10명
- 한국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교육 수료자(2009~2014) : 150여 명

젊은 층의 연계

- 스포츠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여 축구를 통해 **아동과 젊은 층을 연계**하였고, 개인의 축구 기술은 물론 팀 활동으로 **사회성과 자신감**을 향상하였습니다.
- **매년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젝트 및 행사 참여 인원 : 5,000여 명**

지역문제 해결

- 프리미어 스킬즈는 **각 국가와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교육을 받은 코치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에 맞는 교육과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 프리미어 스킬즈는 **국내의 교육 및 축구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였으며, 다양한 파트너십은 더 많은 아동에게 **축구 교육과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국내 파트너십 기관 (2009~2014/5) : 대한장애인축구협회, MBC 꿈나무축구재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마포청소년수련관, 인천대학교, 오산시 물향기 스포츠클럽 등



© British Council



© Matt Wright



© British Council



©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김태열 감독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사례 1

김태열 감독은 프로리그 선수 출신으로 역량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신북 FC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어 스킬즈 4단계 교육을 모두** 수료하시고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코치 1급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 이후, 서울 마포지역의 **다문화가정과 결손 가정 청소년을 위한 축구 교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4단계 최종 교육까지 모두 참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김태열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선수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인지 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묻고 또 묻습니다. 교육 진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얻어가는 게 적어요. 초반에는 이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내야만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만 했죠. 교육을 중도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막바지에 접어들니 이 교육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자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교육! 코칭과 관련해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철학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건데,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교육의 절반을 어영부영 보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울걸, 귀가하는 내내 다음에도 교육이 있으면 참가하겠다는 생각,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지도하는 방식을 다듬어보자는 생각, 축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자는 생각 등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단계 교육에 열렁뚱땅 참여했던 아쉬움을 달래고자 3단계 교육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최종 과정까지 함께 할 기회도 얻게 된 것입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 이외에 지도자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과 그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A 김태열 : 저는 다양한 축구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축구 지도자 교육은 지도자 지시에 따라서 훈련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요. 반면,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지도자 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참가자가 함께 생각하여 만들어 갑니다. 기술이 아닌 선수 중심의 코칭 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이해할 수 있



©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습니다. 제 생각에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축구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축구선수 혹은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만난 축구 관계자와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동료들 간 차이가 있나요?

A 김태열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참가할 수 있어서 축구 선수나 감독으로만 활동하면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교육을 받았던 손민성 감독은 야구 선수 출신이고, 서영익 감독은 사회 복지사입니다. 다양하죠? 덕분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축구 선수 혹은 감독으로 활동하며 만난 축구 관계자들 거의 모두 장애인 지도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 참여했던 박현호 감독이나 조성학 감독은 장애인들에게 축구를 교육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만약 제가 장애인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축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만난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신에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통해서 만난 감독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서영익 감독은 육상선수 출신이라 달리기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북 FC 선수에게 달리기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 저는 서영익 감독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서영익 감독에게 신북 FC 선수들을 위한 달리기 특강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A 김태열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선수 중심 지도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교육을 받기 이전에도 축구 기술 분야에서는 선수 중심 지도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유롭게 운동했던 선수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다고 믿기에, '패스해!' '세트 플레이를 해라!' '그 구역

을 수비해야지!' 등의 지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수 학부모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부모가 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타 클럽에 입단시킬 것을 권합니다. 현재 제가 감독하고 있는 신북 FC에는 고학년 선수가 타 클럽에 비해 적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선수들이 5-6학년 정도 되면 지시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클럽에 입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신북FC 구단에서는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선수가 원하면 흔쾌히 보내줍니다. 선수들이 하나 둘 나간다고 해서, 지시하지 않는 제 지도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들으며 제 방식에 대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이 생겼지요. 하지만, 축구 이외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는 별개로 책 안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맥락에서, 모든 선수들에 매일 독후감 및 일기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선수들이 독후감 및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매일 검사했었지만, 4단계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생활 분야까지 자율권을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뿐이죠. 새 방식을 도입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 British Council

더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조금 더 지속해보려고 합니다.

Q 다문화가정 및 결손 가정 자녀들을 위한 축구 교실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김태열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받은 뒤 축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소외 계층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마포구 청소년 수련관 측에 연락을 하였고, 그 학생들에게 축구를 3-4번 정도 무료로 지도해 보았습니다. 반응이 좋아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북FC에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 출신 선수들도 받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마포구에는 다문화가정이 적은 편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은 다른 지역과 인연이 닿으면 그 곳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구 교실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Q 새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김태열 : 재능, 실력, 체격 등 타 축구 클럽에서 고려할 만한 사안을 우리 클럽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가'만 중요할 뿐이에요. 학생이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생 부모님과 수업료를 협의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축구 감독들도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르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구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 협동조합 전문가를 만나 조합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Q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 참가하시라고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A 김태열 : 이미 지인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북 FC 코치로 활동하는 분은 저의 축구 후배인데, 이미 그 후배에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받으면 지도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 코치가 1단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꼭 초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신북 FC 선수로서 활동했던 제 제자도 현재 신북 FC 코치로 활동하는 중인데요. 유소년 선수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코치입니다. 그 제자에게도 이 교육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PREMIER SKILLS



조성학 감독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사례 2

조성학 감독은 지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와 강원도 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던 중 시단위의 축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삼척시에서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초등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축구 교실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강원대학교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레저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조성학 : 저는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축구 자원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장애인협회 본부장께서 프리미어 스킬즈 1단계 교육을 받으셨어요. 축구로 직접 자원 봉사 활동하는 제가 그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단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 이외에 다른 지도자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A 조성학 :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득 급수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져 교육이 실기를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축구와 전혀 상관 없을 수도 있는, 축구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철학들을 배울 수 있지요.

Q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신선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조성학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 중 가장 신선했던 부분은 **스마일즈(SMILES - Safe, Maximum, Inclusive, Learning, Enjoyment and Success)**¹입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다녀와서 변한 게 있다면, 중학생을 지도하던 대학생을 지도하던 장애인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조성학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을 받기 전에는 '가르친다'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



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잔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SMILES**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의 세대들은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받은 감독님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저 또한 질문하는 것이 어색하나,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1. 축구 코치 프로그램 디자인에서, 참가자의 안전, 최대치 도전, 모든 구성원의 참여, 학습, 즐거움, 성공의 요소 등의 고려 요소를 축약한 용어



© British Council

노력 중입니다. 장애인 선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선수를 가르칠 때, 이 선수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발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장애인 코치를 양성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을 교육시킨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이죠. 하지만, 꼭 도전해볼 것입니다!

Q 지역 사회에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축구 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된 계기가 있나요?

A 조성학 : 삼척 지적장애인 센터의 지부장께서 제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가게에 유니폼을 주문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갖다 드리며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여쭙었더니 지적장애인 축구 팀을 위한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도움 드리겠다라고 답변 드렸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적장애인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축구 대표팀 코치는 물론,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후배의 아들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배를 위해서라도 도 단위 활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삼척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축구 교실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함께 운

동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서도 뇌성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각각 시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축구 교실과는 달리 어떠한 장애를 가졌든, 장애인이든, 비 장애인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이제 시작한 지 거의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Q 축구팀의 참가 학생은 어떻게 모집하셨나요?

A 조성학 : 지적장애인 학부모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학부모들께서는 일반인과 같이 하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이 축구 교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또 일반인과 추구하는 것이 괜찮을지 등을 걱정하셨어요. 그

분들께 저를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Q 이 프로젝트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조성학 : 지적장애인은 개인 종목, 예를 들면 수영, 태권도 등을 통해 신체적 기량을 개발하고 축구 같은 팀 종목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일반인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할지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학부모들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



©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 학부모들과 장애인 학부모 간 교류가 거의 없는데요. 올해엔 학부모가 직접 준비하는 운동회를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간 연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Q 일반인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A 조성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축구 가르치다 보니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이라면 환영하죠. 봉사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론 건디기 어려울 거예요. 강원대 학부생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니 이 학생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축구팀에 참가하는 학생이 몇 명 생겼습니다.

Q 현재 축구교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장비와 운송 등 자비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A 조성학 : 무엇이든 처음부터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요. 특히 스포츠 관련해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불리해요. 지금은 협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몇몇 기관들에 지원을 신청해두었습니다.

Q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 참가하시라고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A 조성학 :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은 쌍방향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프리미어 스킬즈의 교육 철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 좋겠어요.

조성학 감독에게 축구를 배우는 장애인 학생 부모님의 인터뷰

Q 축구 교실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소개해주세요.

A 삼척에 장애부모연대 모임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봉사를 하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사실, 축구를 장애인들에게 유료로 가르치는 곳이 있긴 있는데 장애인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비용도 비싸 부모들이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체 장애인을 키우는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성학 감독님께서서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2013년 5-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Q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나요?

A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을 시켜야 신체적 기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Q 자녀분이 조 감독님의 축구 교실에 참여한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A 이 축구 교실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다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운증후군 아이도 있고, 자폐아, 뇌성마비, 그리고 지적장애인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일반인과 어울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곳이 아니었음 일반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만족해요. 제 아이도 친구들과 매주 어울리며 사회성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이가 처음 수업을 받을 때가 마침 사춘기가 올 때였어요. 많이 염려하고 있던 차에 운동을 통해 아주 행복하게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토요일에 여기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Q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교육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배웠던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은 기술 하나 배우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일반인은 태권도를 10년 이상 연습하면 4단 정도 따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는 이제 검은 띠 심사를 볼

니다.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선 조 감독님께 축구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청 복 받은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 키우는 부모는 대부분 의심이 많아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축구 가르치고 싶다는 의도는 감사하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면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아이들이 매우 우울해합니다. 왜 그만하게 되었는지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죠. 하지만, 감독님께서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감독님을 반신반의했었는데, 반 년쯤 지나고 나서는 감독님 활동을 매우 지지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가 참여하지 않는 날에도 나와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이 함께 팀으로 운동하며 사회성이나 협동심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완급 조절을 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 내주시니 감사해하고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아이가 자신감을 길러 원만하게 자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British Council

PREMIER SKILLS



최병호 감독

프리미어 스킬즈 지도자 사례 3

최병호 감독은 초등학교 5학년에 처음 축구를 시작한 후 프로 축구선수로 2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익산 주니어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최병호 : 다양한 축구 관련 행사와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MBC 꿈나무 축구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였는데, 프리미어 리그 코치가 와서 교육해 준다는 이야기에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의 총 4단계 교육을 모두 수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떠셨나요?

A 최병호 :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기술 교육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이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교육과는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가려고 하는 참가자도 몇몇 있었어요. 저도 내심 집에 갈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나를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교육 방법들이 너무 신선

했거든요. 이는 저희 선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코칭 방법이라 더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1단계와 2단계에 연속하여 참가한 후 3단계 과정에서는 업무 과다로 잠시 중단했지만 다시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Q 감독님께서 받으신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의 차이점이 있었나요?

A 최병호 : 먼저, 축구 코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선수의 연령에 따라 A에서 D급,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교수하는 P급 지도자로 나뉩니다. 저는 중고등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B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죠.

제가 느낀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의 차이점은 참가자와 교육의 전달방식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를 살펴보면, 기존 한국 교육에는 거의 축구선수 출신들이 참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엔 축구와 관련이 없는 분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 축구뿐 아니라 모든 종목 지도자들에



게 도움될 교육이거든요. 운동과 관련이 없는 신 분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국내 전문교육은 강사가 과제를 주는 교육과정을 통해 엘리트 축구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어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 있어서 강사는 미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존재예요. 강사가 무엇이 더 맞는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질 뿐이지요.

Q 프리미어 스킬즈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신선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최병호: 교실에서 하는 수업 방식들은 다 신선했습니다. 창의적이예요. 예를 들어, 팀원들과 함께 종이 접기 게임을 했었는데, 아주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도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Q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의 전과후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A 최병호: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프리미어 스킬즈 교육에서는 강사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참가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방식을 따라서 익산 주니어 스포츠 교실 선수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방식을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